

協會運營의 오늘과 來日

다음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회원간담회 내용을 옮긴 것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협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 모든 회원들이 원하는 회원을 위한 협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었다.

具琿會회장이 이끌어 나간 이날 간담회에는 15명의 회원과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편집자>

◇ 일 시 : 1982년 5월12일 오후 2시

◇ 장 소 : 본협회 회장실

◇ 참석자 :

- 具 琿 會(본협회 회장)
- 金 一 榮(본회이사·동신건설공사)
- 姜 泰 星(고려건축합동설계사무소)
- 金 仁 錫(종합환경연구소 일진)
- 金 希 洙(현신건축기술공사)
- 卞 鎔(원도시건축연구소)
- 徐 千 植(합동사무소 삼일건축)
- 申 吉 雄(홍일건축기술공사)
- 安 永 瀾(주·협신건축)
- 安 將 元(신아건축연구소)
- 李 珏 杓(주·엄&이건축연구소)
- 李 榮 一(삼송·상지건축연구소)
- 李 鍾 寬(한국은성건축기술공사)
- 李 興 秀(신일건축연구소)
- 韓 鏞 燮(한건축설계사무소)
- 洪 光 杓(상협합동건축연구소)
- 任 仁 勳(본부 사무처장)

記錄/崔京鎬

□ 회장 그동안 회원 간담회를 여러차례에 걸쳐 가졌었습니다. 금년에도 회원들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면서 협회의 진로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의논하기 위해 많은 회원들을 모시려고 했읍니다마는 요즘 어려운 실정들이고, 또 제각기 바쁘다 보니까 여기에 오신 회원들만이 참석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협회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와 아울러 진로에 대한 문제가 대담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협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로를 찾아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설정 문제까지도 언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경기의 불황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회원들이 사무실 운영난에 부딪쳐 그야말로 급급하기 짝이 없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협회는 과연 무엇때문에 존재하고 있으며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라는 문제도 곁들여서 대화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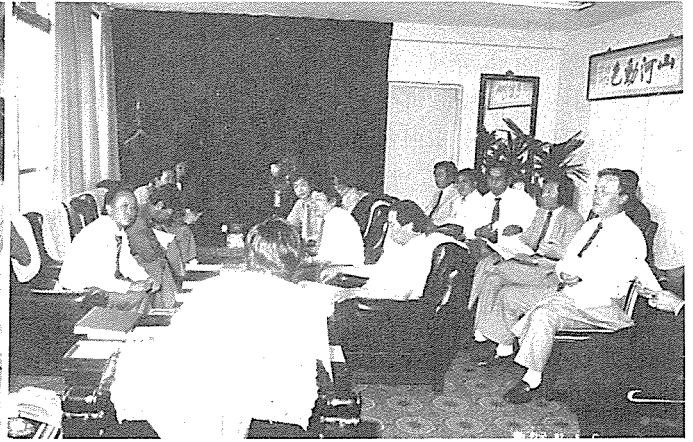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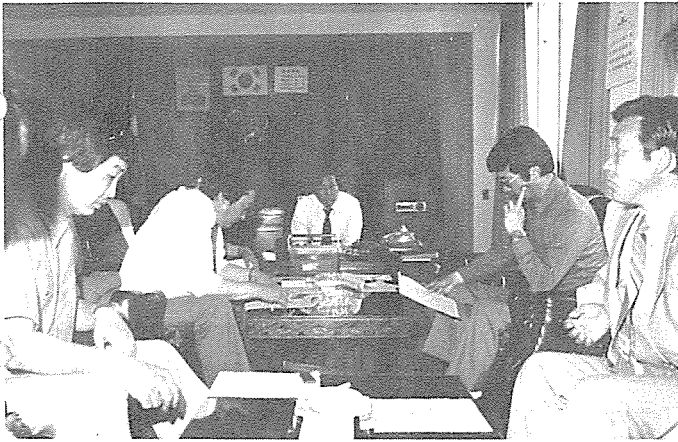
그동안 협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여념없이 세월을 보냈읍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든가 또는 회원의 업무 중에는 무엇이 가장 문제점이다 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한가지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축사들이, 그리고 우리 협회가 해야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건축사협회가 생긴 이래 최악의 상태라고까지 표현할 수 밖에 없는 회원들의 덤핑행위, 그것을 근절시키는 일입니다.

회원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채 예치금의 반액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서도 공공연하게 수탁업무를 하고 있는 사례가, 주로 서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원의 자질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서울시 지부장이 심의때문에 서울시에 나가 있는데, 이 양반 얘기가 얼굴이 뜨거워서 심의장소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원이 작성한 도서가 심의를 받기 위해 들어오는데, 수준 이하의 것, 다시 말해서 고등학생이 해도 더 잘할 수 있을 정도의 도서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실정이니 정부가 건축사를 뭇로 보겠어요?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회원들을 뵈니까 대작(大作)만



□ 협회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회원 간담회가 열렸다.

을 하시는 분들이고 큰 프로젝트만을 다루시는 분들이신데, 그래서 내 말에 아마 수궁이 잘 안갈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건축사 대부분이 큰 것만을 다루는 분들 아니잖습니까? 작은 주택에서부터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하는 회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택경기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강동지구 일부에서는 집장사들이 집장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최고랑 차기에 안정맞춤이게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온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탈법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반지하실같은 것은 완전히 캄플라지해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소화시켜 주지 못하면 무능력 건축사가 되고, 도저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을 잘 다루어 취급해 주는 건축사는 유능한 건축사가 되는데, 이렇듯 불법적인 유능한 건축사들이 이 불황속에서도 하루에 몇십건씩 수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우리 건축사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선도역할을 해줘야 할텐데 이모양이니, 그래서 부실회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도태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이죠.

□ 협회의 棧能을 強化해서 비위회원들을 가려내는 일련의 作業 先行 필요

□ 스스로 權利 포기하는 덤핑행위 하루속히 없어야

□ 안영준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신 것이 회원업무 수행에 따른 부조리 제거 및 의식개혁 방안인데, 사실 지금의 건축경기로 보아 회원님들이 굉장한 악조건 속에서 분투하고 계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덤핑 때문에 저희 건축사 사회가 어지럽혀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회원들이 덤핑의 피해를 보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보조사나 보조원의 판리가 그동안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사나 보조원들이 소속해 있던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끼리 그룹을 형성하여 소위 건축사와 고객이 접촉하는 문제에 보조사들이 접촉, 건축설계를 수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는 정의사회 구현이다 의식개혁운동이다 하는 구호가 한창인데, 여기 오신 소장님들 중에 구청에 들어가 보신 분이 몇분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 경우에는 정말 창피해서 구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구청 건축담당직은 그래도 조금은 나은 편이었어요. 그러나 요즘 새로 배치된 분들은, 아닌 말로 보조원들 상대하다 건축사를 상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한테 대하는게 정말 형편없어요. 회장님께서서는 자업자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겪어 본 경험으로 봐선 어떤 획기적인 방안과 대책이 서지 않는 한 개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좋은 기회를 가졌으니까 몇가지 건의하고 싶은데, 우선 정의사회구현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회와 지부의 공문을 통해 정화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모든 건축사들의 선도역할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건축사 리더로 선택되신 분들이 정화운동에 앞장 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 전체 분소장(分所長)에 대한 임명도 있었고 하니 일단은 그분들로 하여금 정화에 앞장 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명의대여 고발관계인데 이것은 상당히 애매한 문제입니다.

저는 명의대여를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완전히 팔아먹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보조사나 기타 사람들이 와서 도장을 찍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부작용은 도장 찍어가는 쪽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보수요율 지키고 덤핑 안하기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협회나 지부에서 규정을 세우고 규제를 해서 강경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 죄송한데, 설계·감리업무 성실수행에 대한 문제도 협회에서 보수요율에 대한 문제를 각 지부에 충분히 지시하고 하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감리의 경우, 어떤 분들은 연립주택 감리에서 평당 1,800원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감리에 대한 규제, 말하자면 감리에 대한 예치를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보수를 얼마 이상 받아야 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회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설계·감리업무 성실수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다가 행정처분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일에 관한 한 도사가 되어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오면 적당히 얼버무려 일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사건이 전혀 없다가 그야말로 가물에 콩나듯이 한 건 한 사람들만 걸려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과거엔 공무원에게 밋기만 보여도 행정처분을 받은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점들을 전부 감안한 당국으로서의 어떤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 건축사는 부실한 요인을 갖고서 스스로 감리에 응하고 임했으니까 누구에게도 원망을 못할 겁니다. 그러한 시기가 머지 않은 날에 필연적으로 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監理에 따른 제반문제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 돼야……

□ 강태성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연립주택이 허가난 다음 착공 때 감리를 해서 구청에다 제출하는데 협회를 경유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을뿐 아니라 세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2,000 원을 받던 1,800 원을 받던 단돈 1,000 원을 받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협회에서 마련하여 제동을 걸어 줘야지 감리하는 사람은 종합감리를 해서 도장만 찍어주면 수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설계에는 예치가 있고 세금도 있지만……

□ 회장 문제가 여러가지 있어요. 세금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설계도서는 일정한 실제비용을 받고 있으면서 감리에서는 받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그 당시, 아마 전체회원들의 반대이론이 있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이론이란 뭐냐 하면 감리에 대한 업무한계 때문이었어요. 그렇잖아도 지금 감리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40여개의 사무소에서 종합설계사무소라 하여 감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실공사가 나오는 이유가 감리의 부실에서 온다 해가지고 각계각층을 망라해 다니면서 KBS가 심층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엇그저께 우리 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사무처장하고도 인터뷰를 해갔습니다. 또 한 별도로 감리공단이 생길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처가 건축사 이외의 건축기사나 건축기술사들로 감리공단을 구성할지도 모른다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길웅 감리문제는 대책을 세운 다음에 거론되어야 한

다는 좋은 말씀도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법규정에 나와 있는 특수건물 150명 이상, 일반건물 200명 이상은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많은 설계사무소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된 회사에서조차 기술자를 상주시키지 않는 예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공을 건설회사에서만 하게 되면 감리도 하기 쉽고 또 기술자가 나가 있어도 감리하기가 좋은데 집짓는 방향까지 전부 감리기사가 해줘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문제가 무척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연립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50세대에서부터 백몇십 세대까지 지면서도 건설회사하고 어물어물해서 도장만 찍어주는 예가 있어 작년에도 서울에서 무척 큰 형사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회에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협회운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물론 사무처에서는 부지런히 일을 하려고 해도 소속 회원이 너무 대가족입니다. 서울시 지부가 4개 분소를 운영하던 때만 해도 회원 상호간의 얼굴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연락소장인지도 모를뿐 아니라 어떤 모임조차 갖지 않으니까 연락소장이 백번 있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등록을 하는 사무실들이 너무 영세성을 띄고 사무실 개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번두리에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 가지고 책상 두개 정도 놓고 종업원 한명, 설계사 한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영세성의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덤핑을 하게 되고 또 회원 상호간의 얼굴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면을 바꾸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소별로 친목회를 조성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 연락소의 기능이 발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친목회를 통해서 얼굴을 익히다 보면 상대방의 인격을 짚으면서까지 남의 일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은 적어도 생기지 않을 거 아니예요?

□ 건축사 스스로의 主体意識을 가지고 어떤 決意를 해서 각성해야 할 때

□ 김희수 저는 우리 건축사협회의 발전을 위해 다섯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건축사 스스로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어떤 결의(決意)를 해서 각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는 회장님이 어떤 강력한 책임 아래에서 무엇인가 단안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사무처를 강화해서 모든 부조리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번째로는 부실한 건축사가 나올 경우, 회지에 이름과 사진을 실어서 공개하여 이런 건축사가 있어 협회에서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식의 경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 봄, 제가 아는 몇분이 이런 말을 하데요. 소장님은 이번에 걸려들

지 않았느냐구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신문에 몇십명의 건축사들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더군요. 고령자가 직접 디자인을 못하고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보조사나 기타 계리인에게 맡긴단 말이예요. 자기는 자리나 지키고 앉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아닌가 하는 느낌인데, 협회 사무처에서 보조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준다면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회장 고령자에 대한 문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일찍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에 도달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건축사들이 전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 입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왕 욕먹은 것, 더 먹고 보자는 그러한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 한홍섭 오늘 이렇듯 좋은 모임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담의 줄거리가 협회운영에 대한 방안이라 해서 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내용도 나오는데,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과 집행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가지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협회 사무처에서 제시한 유인물에 대한 설명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 이렇게 해보았는데 앞으로는 저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식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합예산제도에서 지부 자율예산제도로 운영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 강태성 여기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 豫算制度는 현실적으로 협회운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해야

□ 회장 내가 볼 때도 설명보다는 당면된 문제부터 얘길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묶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나오신 분들 중 통합예산제도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통합예산제도에서 지부 자율예산제도로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나 하면, 현재 우리 건축사협회는 본부가 중심이 되어 있는, 소위 중앙체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 자율적으로 한다 그겁니다.

□ 이홍수 유인물 내용을 읽어 보니까 제도 자체에 대한 찬성은 이미 선제조건으로 나와 있는데, 다만 그 해의 예산상의 운영방법을 예를 들어 1안으로 할 것이냐, 2안으로 할 것이냐, 기타 안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부의 운영자금과 본부 부담금을

비율로 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막상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경우, 예산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해요.

□ 처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부는 자율예산으로 하되 실적회비만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한 본부는 전체 정회원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니면 비율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등에 대해 여러가지 안이 나오면 종합해서 검토할 방침인 거죠.

□ 서천식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성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제시된 후에 거론해야 할 것 같아요.

□ 처장 그러니까 회원님들로부터 좋은 의견과 여러가지 안을 듣고, 그것을 종합해서 이사회나 각 위원회에 통보하여 검토한 다음에 총회로 올라가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오늘 간담회 목적이기도 한거죠.

□ 강태성 내용은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실적회비만 받아가지고 지부를 운영하는데 그 예산이 맞는지 안맞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 김일영 이전 그래요. 작년도 정기총회 때 대의원 전체적인 의사로서 83년도부터는 독립예산으로 운영하게끔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작성해서 지난번 건설부로 올린적이 있구요. 그런데 건설부로부터는 부정적인 반응이 왔었습니다.

때문에 유인물에 나온 내용은, 대의원 총회에서 일단 집행부에서 위임한 사항이므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독립예산으로 할 경우의 문제점·장단점 등을 집행부에서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물론 집중적으로 거론되어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얘기하자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 김희수 자율예산으로 하게 되면 지부의 활동이 활발해져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가 있고 상호보조나 어떤 행사같은 것도 바랄 수가 있는데 통합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결여되어 회원간에 얼굴보는 일이 드물다든지 해서 시정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유인물이 요구하는 핵심같은데……,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 회장 통합예산이나 자율예산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사협회 조직이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자체의 조직에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지부는 현재 900명 가까운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많은 회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지부가 가장 추악지부가 된 원인도 시지부라는 데에 문제의 발단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지부장의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상근도 아닌 명예직인 지부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부사무실에 나와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에다가 모든 업무를 맡기게 되는데 현재의 사무국 체제가 900명 가까운 회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해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900명 가까운 회원을 가진 서울시 지부가 현 사무국 인원을 가지

고 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말입니다.

해서 서울시 지부의 조직을 바꿀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인데, 대책은 서울시 지부를 서울 건축사회, 즉 하나의 연합회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건축사 연합회로 해서 본부는 중앙회가 되고 각 구청별로 연합회, 즉 지부를 두어 조직을 확산시키고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건축사의 권익과 회원의 권익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요. 그래서 통합예산이니 하는 문제보다 그러한 조직이 먼저 이루어져서 제도적으로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애 겁니다.

□ 이홍수 통합예산제도에서 지부 자율예산제도로 운영을 강구한다는 항목과 협회 사무처 운영의 활성화 방안은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저는 감리업무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하면 감리란 감독 위에 앉아 있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감리자들이 감독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업무규정에도 명확하게 나와있질 않아요. 이점에 대해서도 제도를 분명하게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감리업무의 규정을 분명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설계용역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식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매번하면서 느낀 건데 말투는 고쳐져 있지만 양식은 옛날과 똑 같아요. 그리고 설계와 감리가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설계 및 감리보수 계약서로 되어 있지요? 이것도 분리하든가 아니면 하나로 만들든가 해서 고쳤으면 해요.

□ 회장 그 용지는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원가로 공급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 이홍수 공급보다는 감리계약과 설계계약이 분리된 것도 있고 합쳐진 것도 있어요. 어느 것을 사용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죠.

□ 회장 그래서 업무한계의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작은 주택 다루는 회원들에 대한 문제, 이 생각을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회원들을 계층 두는 것 같아 반대했었는데, 문제가 자꾸 어렵게 얽혀지니까 이제는 작은 주택 업무와 여러가지 건축의 경우에 따라 구분해 가지고 뭔가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개정된 법이 공포되고 7월 부터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업무에 대한 것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 처장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된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의 현장 조사서와 검사서로 해서 건축허가 또는 준공검사까지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건축사에게 업무를 이양했을 때 범상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떠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해주는 뇌물수수 또는 금품수수 등에

해당되는 자는 형법이나 공무원법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사에게 업무를 이양했을 때, 일단 공무원의 자격에 준해서 협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허가내기 전에 도서 사전심의 기능을 협회에
서 생각해 볼 필요 있어——

□ 회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협회 차원에서 볼 때에도 허가를 내기 위해 작성한 도서를 일단 협회에 검토의뢰한 다음 제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축사가 그것에 능통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만든 도서에 자신을 갖지 못하거든요. 자신을 갖지 못한다기 보다는 한번쯤 제3자의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일차적으로 각 지부의 도서창구에서 도서심의나 검토를 하는 관계자를 배치해야 되는 그런 대안이 서야 되겠지요.

그리고 건축사가 책임을 다해 업무를 해결해 나간다면 건축사의 자질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물론 개정된 법 자체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로서도 나름대로 회원들에게 유리하도록 법 개정을 시키기 위해 스터디하고 노력했지만, 역시 문제점은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현재 건축사가 하고 있는 업무가 부실한 것이 많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만 맞는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 안장원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전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 사법(士法)이 개정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자질과 책임한계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수규정이라든가 감리규정같은 것이 사실은 건설공사협회에서 71년도에 만든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정된 것이 거의 없어요. 보수를 규정을 보게 되면 전문화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학교다 하게 되면 2종과 3종이 있는데 그것이 국민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대학교인지 하나도 구분이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전에 협회로 문의한 적도 있지만, 아마 건축주들이 보기에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말은,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면 우리 자체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당하지만 말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자체에서 연구하고 개발하여 전문화시켜 보수기준도 고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회장 보수요율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개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사장(死藏)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수요율을 올려 달라고 하기 이전에 규정된 보수요율의 20%도 안되는 요율을 받고서 일을 하고있단 말입니다.

□ 안장원 우선 어휘성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

면 우리말 자체에 상당한 모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도 종류가 수십개가 있다구요. 예를 들어 그러한 조항부터 우리가 조직적으로 연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스터디해보자 이겁니다.

□ **이각표** 저희가 건축사협회를 외부에서 보았을 경우, 과연 무엇을 하는 단체냐, 정말 우리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법이나 건축법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요즘 엔지니어링같은 데에서 우리 사협회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지니어링에서 설계업무를 수탁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사협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건축사의 설계사무소라는 곳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들은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상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관청 관계에서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조직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건설부나 이런 데에서 왜 건축사를 형편없이 보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 **協會조직 변화 강구 — 副會長, 任員증원으로 대외 이미지 쇄신**

□ **회장** 새로 선임된 임원들이 무척 애를 쓰시고 뭔가 하기 위해 노력들을 하시니까 뭔가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 취해진 일이 뭔가 하면, 오는 10월 총회에서 임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본부 이사도 현재 5명에서 4명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번에 상근 부회장이 본부에 오십니다.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차관보까지 지내신 분이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관청에서 우리를 푸대접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천여 회원,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난 그걸 회지를 내면서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뼈아프게 회지를 만들어 내봐야 도대체가 들춰보질 않아요. 특히 지도층에 속하는 2~3백명의 회원이 회지를 더 외면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분들의 참여 없이는 회지가 제구실을 못하고, 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협회 일에 참여를 해줘야 하는데도 말이죠.

엔지니어링 문제는, 지금 단계로서는 어설픈게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가 현재 손을 다 들고 있어요. 사실 뒷모르고들 엔지니어링을 우후죽순격으로 해놓고서는 문닫는 곳이 속출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협회의 체제와 조직에 변화를 가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앞으로는 절대 과거로 되돌아 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 **변 응** 요즘 건축사들이 일할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내장식·환경·조경·구조·설비 등 각각 분야가 세분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 건

축사는 건축 외장만을 디자인하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건축사의 역량이 피상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건축사협회에 여러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찾을 권리의 영역을 확대시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 **회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근본적으로 따지면 건축사와 건축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말하자면 건축사가 건축가이고 건축가가 바로 건축산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건축사와 건축가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건축사가 요구하는 설계도서와 건축가가 요구하는 설계도서 애기에는 차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원천적인 문제인 동시에 우리 협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풀지에 풀어나갈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요율과 관련되는 문제는 다시 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분 말씀하시죠.

□ **홍광표** 지금 협회의 전문기구 위원회에서 어느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계속해서 연구·검토가 되어 가지고 회원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회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결코 잃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도시설계라 해서 현재 중요한 도심지의 도시설계가 전부 도시설계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구나 설비·조경 등, 분리가 되어 가니까 건축사들의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 **서천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렵사리 마련한 건축사협회 회관이 충심가에 있어 좋긴 하지만 좀더 멀리 나가드라도 싸고 넓은 땅에 큰 회관을 지어서 큼직한 회의실도 갖추고 상설 전시장도 마련하여 자재샘플을 전시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에게 소방·설비·전기 등에 대한 교육을 연중무휴로 자꾸 교육시켜 주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좁은 곳에서 많은 회원이 모인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외기술에 대한 테크닉이나 자료를 수집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사협회에서 해줘야 할거구요.

□ **會館移轉으로 보다 많은 會員이 함께 자리할 수 있는 契機 있도록 —**

□ **회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회관을 이전하기 위한 회관전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회관을 팔려면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게는 팔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일대가 재개발지구로 묶여 있으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이전을 하긴 해야할 것입니다.

□ **이종관** 저는 강동지역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강동지역이 취약지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동지역의 집장사 운

운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3년 전만 하더라도 강동지역에 설계사무소가 한 두개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0개가 넘고 있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회원들이 늘어 나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일부 부당건축사나 보조사들이 덤핑행위를 하여 많은 건축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월달만 하더라도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고 지난달에도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를 활용해서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쯤 회원끼리 모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강동지구만이라도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더욱 더 경주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협회 참여가 빈약하거나 안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가져 협회실정이라든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사들이 지방 출장이다 해서 설계나 감리 등, 그 외 일에 스테디를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경우 협회의 부장이나 직원들이 건축사를 대신해서 일을 취급해 주거나 스테디를 해줌으로써 건축사가 마음놓고 일에 임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 졌으면 합니다. 더불어 저희가 하루 속히 정당한 보수요율을 받는 방법, 또는 후생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인석 우리 건축사협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무역협회·건설협회 등이 있는데 유독 우리 건축사협회만이 대외적으로 취약한 것 같아요. 무역협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상근 상무,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상공부같은 데서 임의로 일을 처리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협회가 대관청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시키고 있는데 우리 건축사협회만이 관청이나 국민들에게 좋지않은 단체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일반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건축감리란 무엇이며 감독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이나 관청에 완전히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언론기관에서 심층취재를 의뢰해 올 경우, 사무처에서 스테디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건축사협회의 애로라든가 건축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으니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교육도 필요해요. 회원을 10명이나 20명 모아놓고 정말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문제를 물어 볼 수 있는 건축법규에 능통한 분을 초빙한다든가 아까 말씀대로 상근

부회장을 두어 자꾸 교육을 시킴으로써 관청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망신 당한다는 생각을 하게끔 차원 높은 제도와 여건조성을 협회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권리다, 자질문제다 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 폭넓은 弘報활동으로 協會·會員에 대한 일반의 認識度 높혀야

□ 회장 그래서 금년 초에 TV 인터뷰를 통해 전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충분한 홍보자료를 가지고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산되고 말았어요. 원인은 예산상에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홍보비라고 갖고 있는 것이 100만원인데 TV에 한번 나가려면 4~5십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런 상황 아래에서 한두번 홍보활동 해봐야 무슨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몇천만원을 들여서라도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긴 합니다.

□ 서천식 그렇죠. 만약 예산이 보강되어 홍보활동이 활발해지면 관에서도 우릴 무시 못할 겁니다.

□ 회장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현재 예산은 달리고 하니까 회지를 잘 만들어서 건축사 회지를 우리들의 하나의 무기로 삼자는 겁니다. 정부시책에 대해 불만스러운 것은 정당한 입장에서 비판도 해야 하고 말입니다.

□ 한용섭 그러니까 홍보비를 과감히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투자를 해야 들어오는 것이 있지 투자없는 이익이란 있을 수 없잖겠어요?

□ 이영일 오늘도 관청에 불일이 있어 들어 갔었습니다. 건축법을 전혀 모르는 직원들이 앉아서 위법적인 면에서 맞는 법을 자꾸 고쳐야 한다고 그래요. 해서 안되겠기에 과장이랑 직원들을 다 앉혀 놓고서 열변을 토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잘못 생각했었다고 사과를 하기에 그냥 돌아 왔는데, 아뵤튼 관계 직원이 이런 식이니까 건축사들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법을 고치는데 덮어놓고 고치단 말예요.

감리문제도 그렇고 건설업법도 그래요. 전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처벌대상으로 되어 있지 건축주나 건설회사는 처벌이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진짜 위법자는 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맨날 우리 건축사만 처벌을 받는다구요.

□ 회장 수고를 하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에 모여서 뜻깊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제시된 얘기를 집약해서 최대한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협회라는 단체를 구심점으로 하여 2천여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랜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